

1. 추석 명절 국민 인식



추석 연휴,

‘1박 이상 고향 방문 계획 있다’ 19%로 작년(16%)보다 높아!

- 한국 갤럽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1박 이상 고향 방문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, ‘고향 방문 계획 있다’ 19%로 나타나 코로나 사태 후 작년 추석 때 16%보다 미세하지만 3%p 증가하였고, 올해 설 때 12%보다는 7%p 높아져, 국민들의 고향 방문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하지만 2016년엔 고향 방문 계획 있다는 응답이 39%여서 여전히 코로나19가 고향 방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이번 추석 때 1박 이상 고향 방문 계획 (연도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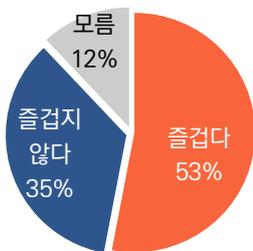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 갤럽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464호(2020년 9월 2주)', 2021.09.10(전국,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,001명, 전화 면접, 2021.09.07.-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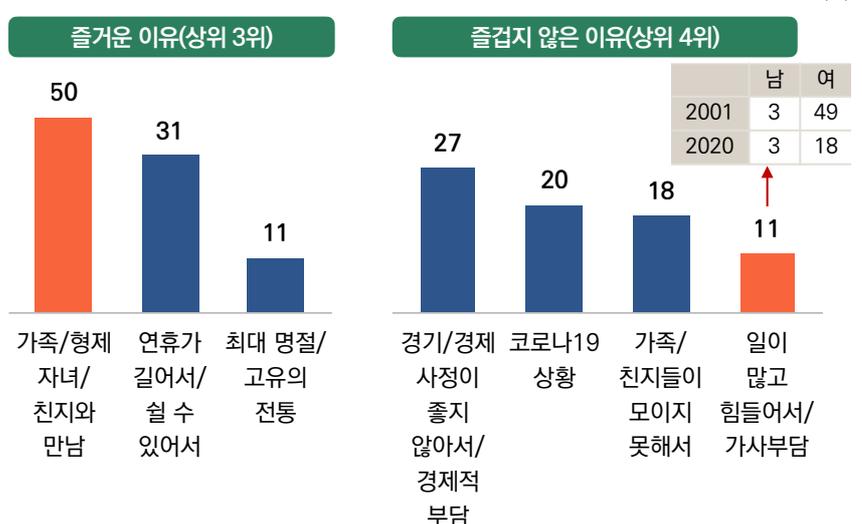
● 추석 명절맞이 기분, ‘즐겁다’ 53%, ‘즐겁지 않다’ 35%

- 추석 명절맞이 기분으로는 ‘즐겁다’ 53%, ‘즐겁지 않다’ 35%였는데, 즐거운 이유로는 ‘가족/자녀와 만남’ 50%로 가장 높았고, 즐겁지 않은 이유로는 ‘경제적 부담’ 27%가 가장 높았다.
- 즐겁지 않은 이유 중에 4위인 ‘일이 많고 힘들어서/가사 부담’(11%)에 대해 남녀의 응답률 차이가 흥미로운데, 2001년 ‘남자’는 3%, ‘여자’는 49%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2021년은 남성은 3%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, 여성은 18%로 2001년보다 대폭(31%p) 낮아졌다. 이는 명절 때 제사 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여성의 가사 노동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.

[그림] 추석 명절맞이 기분 (%)



[그림] 명절맞이 즐거운 이유와 즐겁지 않은 이유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 갤럽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464호(2020년 9월 2주)', 2021.09.10(전국,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,001명, 전화 면접, 2021.09.07.-09)